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인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7개 지구 1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1억원 등 총 10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선정

남원시 농림축산식품부 시행 · 10개 사업 102억원 사업비 확보

남원시가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공모사업인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7개 지구 10개 사업이 선정돼 국비 71억원 등 총 102억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읍면소재지에 교육·의료·문화·복지·경제 등 중심 기능의 활성화와 네트워크를 통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역할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산내면이 60억원이 투자되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문화·복지 시설확

충과 주변경관 개선을 위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6개 마을(30억원/마을당 5억원), 시군역량 사업인 행복남원 만들기 1종(12억원)이 각각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2017년부터 4년간 시행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신청방법으로 선정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1년 전부터 대상지구를 선정해 역량

교육과 소액사업, 현장포럼 등 단계별 이수사항을 꼼꼼히 준비해온 결실이다.

이원주 시장의 민선6기 공약사업인 "창조적 농촌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는 정부정책 트렌드가 농업중심에서 농촌개발 변화됨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미리 정하고 적극 공모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 2018년 공모사업도 11개 지구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공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향교가 주관하는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이 순창읍 교성마을 순창향교 명륜당 앞 마당에서 9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순창군, 전통놀이 체험 프로그램 진행

12월 21일까지 순창향교서... 수요일 · 주말 나눠 운영

전북도와 순창군이 후원하고, 순창향교가 주관하는 2016년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이 순창읍 교성마을 순창향교 명륜당 앞 마당에서 9월 7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전통놀이 현대화 체험 프로그램은 산업화로 사라져가는 전통놀이 또는 민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놀이를 현대적인 재미(맛, 멋, 흥)를 담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해 전통놀이 문화를 확산하는데 주안점을 둔 공모사업으로 금년에 전국 최초로 전라북도에서 시작된다. 올해는 도내에서 순창향교를 포함한

5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이며, 순창군은 순창향교를 한국적인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평일과 주말로 나누어 운영되며, 평일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전래놀이지도사의 설명과 함께 체험이 진행되며, 주말은 매주 토·일요일 오전 10시, 오후 2시 두 차례 2시간에 걸쳐 군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밖의 평일과 추석 연휴에는 참여자의 자유 체제로 진행되며, 기간 동안 순창향교는 상시 개방된다. 개인이나 단체

로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 관광객, 학생들은 순창향교(063-652-0649)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 7일 순창향교에서 처음 진행한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은 순창읍 옥천유치원생과 교사, 향교 유립 등 50명이 참여하여 비석치기, 산가지, 투호, 공기놀이 등을 전래놀이지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함께 놀이 체험을 실시했다.

순창군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군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문화의 특화를 통한 토질관광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고창 북분자주, 중국 수출 컨테이너 작업 실시

고창북분자주가 중국대륙을 대표시키고 있다. 지난 6일 고창서해안북분자주(대표:송만희)는 중국 산둥성 자주(대표:송만희)는 중국 산둥성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해구일무역유한공사에 북분자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번수출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 산둥성 유명백화점에 추석선물 상품으로 납품될 예정이며, 수출규모는 고창의 대표특산품인 북분자주 2,000세트, 5

천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고창서해안북분자주의 대표제품인 '선운'은 최상급 고창산 북분자에 원적외선과 바이오 성분이 함유된 황토토굴에서 발효시켜 빚어낸 술로, 2003년 대통령 하사주, 2005년 APEC 공식 만찬주로 등으로 사용되어 명성을 떨친 바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임실군, 치즈축제 사전 준비 향토음식 품평회

메뉴 12종 부메뉴 39종 선정

임실군은 '2016 제2회 임실N치즈 축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로 '향토음식 품평회'를 개최했다.

8일 전북동부권고추(주) 농산물가공센터 교육장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읍·면별 특색 있는 향토음식 먹거리를 경진을 통해 주 메뉴 12종, 부메뉴 39종을 선정해 임실N치즈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잊지 못 할 고향의 맛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 생활개선회원들은 지난 3월부터 총 9회에 걸쳐 고유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맞춤형 요리를 개발하는 요리실습을 진행했다.

또한, 향토음식 먹거리 개발과 보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회원들의 단합을 비롯해 향토음식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심민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우리군은 다품목 고급화 농산물 생산지역으로 향토음식 개발 가치가 높다"며, "새로운 먹거리 문화 발전에 노력해 새로운 변화 살고 싶은 임실"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군 관계자는 "향토음식 품평회를 통해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향토음식 발굴을 적극 지원해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음식을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추석연휴 수돗물 공급 시설물점검 비상근무

남원시(시장 이원주)에서는 추석을 맞이하여 안정적인 상수도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시설물점검·점검과 연휴기간동안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시설물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정비·점검을 통한 추석연휴기간 평상시 수돗물사용량(2만4,000톤/일) 보다 증가(3만1,000톤/일, 증 30%)를 대비한 추가 공급량 확보, 정수시설 등 시설물의 최적상태 유지 및 고지대 단수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추석연휴 기간 동안 수돗물 수요량 증가를 대비, 광역상수도 공급체인 한국수자원공사 동화권관리단(동화정수장)에 수돗물 추가 공급 요청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고, 자체 운영하는 월락정수장 및 배수지(10개소), 가압장(15개소), 감압변

(31개소) 등 시설물 이상유무 점검 및 감압변설 유출압력을 높이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추석연휴기간 동안 누수발생 및 긴급 복구공사 등을 대비하여 상수도비상대책반을 2개반 10개조 30명으로 편성 운용하여, 시민과 귀성객이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일시적 많은양의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 고지대 지역은 저수압으로 인한 출수불량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간시간때 물을 받아 사용하고, 누수 및 단수·출수불량이 발생할 경우 즉시 상수도사업소 상황실에 신고(☎ 620-6898)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순창군, 장애인·일반인 대상 수화교육 큰 '호응'

순창군이 장애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수화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수화 강좌는 지난 1일부터 실시했으며 12월 15일까지 4개월간 매주목요일 군립도서관 문화강화실에서 실시된다.

이번 수화교육은 순창군이 지식정보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사회참여를 실현해 보고자 마련된 강좌다.

첫날 강좌에서는 순창군수화동역센터 박상희 사무국장을 초청 '손끝에서 전하는 소통의 첫걸음, 마음의 울림 수화를 배우다' 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모여 장애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9월 8일부터 이어지는 강좌는 매주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

시까지 진행되며 '어서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등 수화교육을 4개월간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1시 30분부터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화통역 영상자료를 활용 영화도 상영할 계획이어서 매달 한차례씩 전주를 방문하여 영화를 감상해야하는 불편함도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7월에 개관한 순창군립도서관은 도내에서 최초로 장애인자료실(장애인정보누리터)을 설치하고 장애인이 도서관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독서확대기 등 10여종의 보조기와 5천여점에 달하는 점자·음성녹음도서 및 화면해설영상도서 등 전자매체자료 그리고 장애인이 전 화면하면 집까지 무료로 도서관자료를 배달해 주는 '책나래' 서비스를 운영해 장애인 복지에 앞장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협 고창군지부, 농축산물 전달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지부장 박성일)와 흥덕농협(조합장 이상겸)이 풍성하고 넉넉한 한가위를 기원하며 관내 농촌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에 우리 농축산물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평소 고창군지부와 흥덕농협 직원들이 지역사랑을 실천하며 알게 된 농촌지역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난 7일 흥덕농협관내 5가정을 방문하여 전달하였다. 본 사업은 농협임직원들이(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회원으로 가입하여 매월 1,000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대표 허권)는 전국의 농협임직원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는 단체로, 이 외에도 다양한계층의 시민들에게 우리농축산물 소비캠페인을 실시하여 우리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 활성화로 균형발전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현재 2만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서울 서대문에 본부를 두고 각 16개 지역본부를 통해 전국단위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순창경찰, 학생 초청 경찰직업체험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지난 7일 오후 경찰서로 학생들을 초청해 경찰 직업 소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 대한 자유학기제 진로직업체험 중 경찰 직업 체험을 선택한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경찰서로 초청해 경찰 직업 전반에 대한 이론적인 소개와 경찰 입문 방법, 경찰장구인 삼단봉 등 작동 체험, 112종합상황실 견학, 진술녹화실 조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통해 경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차 경찰관이 되는 방법을 습득했으며 미래 경찰관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더욱 키우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전담 경찰관 아저씨가 경찰이 되는 방법, 경찰이 하는 일, 경찰 장비 등을 잘 소개해줘 막연히 알던 경찰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다"는 일성이다.

최규은 서장은 "청소년들에게 경찰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농협임실군지부, 쌀 100포 기탁

농협 임실군지부 지부장(최완)은 8일 임실군청에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소외된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나눔 한가위 사랑의 쌀(10kg) 100포를 전달했다.

농협 임실군지부는 매년 명절 때 마다 "사랑의 쌀"을 기탁하고 있어 지역사회 나눔 문화 공헌에 앞장 서고 있다.

심민 군수는 "올해도 추석명절을 맞아 나눔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던 차에 소중한 물품을 기탁해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게 됐다"면서 이 나눔 문화가 더 확산되어 임실 지역사회가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완 농협 임실군지부 지부장은 "이번에 전달되는 쌀이 추석 명절을 맞아 쓸쓸히 지내는 불우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농협은 앞으로도 임실군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작은 실천을 통한 큰 기쁨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